

손정도의 전기(前期) 목회사역과 민족운동에 나타난 기독교 신앙과 그 형성 배경에 관한 연구

김명배 (송실대학교 부교수)

- I. 서론
- II. 제1기: 손정도 목사의 개종과 신앙체험, 그리고 교육
 - 1. 출생과 기독교로 개종
 - 2. 송실중학에서의 종교적 중생의 체험
 - 3. 목회소명과 민족구국운동 참여
- III. 제2기: 국내 목회와 중국 선교사역
 - 1. 진남포 목회와 중국 선교사역
 - 2. 가초라 암살음모사건과 진도 유배
- IV. 전기(前期) 목회사역과 민족운동의 신학적 특징과 그 형성 배경
 - 1. 종교개혁적 복음주의 신학과 그 형성 배경
 - 2. 역사참여적 민족구원의 신앙과 그 형성 배경
 - 3. 사회 개혁적이고 변혁적 신앙과 그 형성 배경
- V. 맺음말

• ABSTRACT •

**A Study on the Christian Faith and the Background of Its Formation
in Son Jeong-do's Early Pastoral Ministry and National Movement**

Associate Professor, Kim, Moun-g-Bae (Soongsil University)

In the history of Korean national movements, Pastor Son Jeong-do is the most important national activist representing Korean Christianity. His life was a series of struggles for the national independence movement as well as his pastoral ministry. He turned from the individual level of Christian faith into the level of pastoral ministry, and developed it to the level of nation. Therefore, Pastor Son Jeong-do can be called a true Christian nationalist.

Based on the research achievements so far, this paper will examine the faith and theology that appeared in the early pastoral ministry and national movement of Pastor Son. And also, it will trace the process of how his theology was formed. For this purpose, this paper will examine the conversion of Pastor Son and his days at Soongsil Middle School and deal with missionary work in China and domestic pastoral work before the March 1st Movement.

Key words: Son Jeong-do, Personal Salvation, National Salvation, Social Change

I. 서론

한국에서의 ‘민족주의’운동은 특수하게도 종교, 특히 기독교회와 깊은 관련 속에서 일어났다. 이러한 이유는 아직 근대문명과 문화를 경험하지 못한 한국에 서양의 기독교 선교사들이 들어와 기독교 신앙을 전파함은 물론, 서구의 근대학문과 문화를 소개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국의 애국지사들과 청년들은 근대학문을 배우기 위해 기독교회에 들어왔고, 자연스럽게 서구의 정치사상을 배우면서 민주주의 사상과 민족의 자주독립 의식을 고취하게 되었다. 특히 일제강점기에 정치적 집회와 결사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자, 유일한 합법공간인 교회로 모여들게 되었다. 그래서 한국의 민족주의 운동은 특수하게도 ‘기독교 민족주의’¹⁾라는 이름으로 활발히 전개되었다.

그런데 한국의 기독교 민족운동사에서 해석 손정도 목사는 기독교계를 대표하는 가장 중요한 민족운동가 가운데 하나이다. 그의 일생은 목회사역과 동시에 민족의 독립운동을 위한 투쟁의 연속이었다. 그는 3.1운동 직전 독립운동을 위해 중국 북경으로 망명했다가, 상해임시정부에 참여하여 의정원 의장과 교통총장을 역임하였고, 길림에서는 목회와 동시에 한인들의 생활기반을 조성하고 독립운동의 재정적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이상촌 운동을 전개하였다. 따라서 그는 기독교 신앙의 개인적 차원을

1) 이덕주는 기독교와 민족주의 운동의 관계를 둘로 나누어 설명한다. 첫째로는 기독교를 민족운동의 방편으로 삼는 유형, 둘째로는 기독교 정신에 충실하게 민족운동에 참여하는 유형이다. 전자는 궁극적 목표가 민족운동이기 때문에, 기독교에서 민족운동의 한계가 드러나면 다른 종교나 이데올로기로 전향하고, 후자는 기독교 신앙 자체가 궁극적 목표이고, 민족운동의 그 신앙의 구체적 실천으로 상호 보완적, 혹은 상보적 관계를 이룬다고 한다. 따라서 후자만을 진정한 의미의 ‘기독교 민족운동가’라고 부를 수 있다고 한다. 이러한 차원에서 그는 해석 손정도를 ‘진정한 기독교 민족주의자’라 칭한다. 이덕주, “손정도 목사의 생애와 기독교 사상,” 『손정도 목사의 생애와 사상』(서울: 감리교신학교출판사, 2004), 30-31.

넘어 목회의 차원으로 나아갔고, 민족의 차원으로 승화 발전시켰다.²⁾ 그러므로 해석 손정도 목사야말로 진정한 기독교 민족주의자라 부를 수 있다.

지금까지 해석 손정도 목사에 대해 서술한 논문이나 글, 단행본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우선 1차 사료로는 손정도 목사 자신이 목회하면서 기록한 「목회수첩」과 「설교초」들이 있다. 그리고 2차 사료로는 만주 길림에서 함께 목회사역의 동역자로 사역한 배형식 목사의 『海石 孫貞道 牧師 小傳』과 역시 손정도 목사의 활동을 지켜본 최봉측이 집필한 『故 海石 孫貞道 牧師 略傳』 등이 있다. 평전형식으로는 김창수·김승일이 공저한 『海石 손정도의 생애와 사상연구』가 있다. 그런데 손정도 목사에 대한 연구는 2000년대 들어와 학술논문의 형태로 비교적 활발하게 연구되기 시작하였다.

2000년대 초반 남북한의 학자들이 모여 “손정도 목사의 생애와 민족운동에 대한 이해”를 주제로 개최된 학술대회는 손정도 목사를 깊이 이해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 학술대회에서 남한측에서는 이덕주 교수가 “손정도 목사의 생애와 기독교 사상”, 이명화 박사가 “항일민족운동사의 맥락에서 본 손정도 목사”, 한규무 교수가 “일제강점기 기독교 사회주의와 손정도 목사”를 발표하였다. 북한측에서는 조선사회과학자협의회 부국장인 김석준이 “우리나라 반일민족해방운동과 손정도 목사”, 4.15 문학창작단의 김영희 작가가 “김일성 주석의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를 통하여 본 손정도 목사”, 조선사회과학자협의회 처장인 강수현이 “손정도 목사의 반일무장투쟁로선” 등을 각각 발표하였다. 이 논문들을 통해 그동안 잘 알려지지 않았던 그의 삶과 민족독립운동의 연관이 어느 정도 드러났다고 할 수

2) 김석준, “우리나라 반일민족해방운동과 손정도 목사,” 김득중 편, 『손정도 목사의 생애와 사상』 (서울: 감리교신학대학교출판부, 2004), 131.

있다.³⁾

이 밖에도 국내의 학술논문으로 이현의 교수의 “손정도 목사와 상해 임시정부”, 이덕주 교수의 “기독교 신앙과 민족운동-손정도 목사를 중심으로-”, 그리고 조이제 목사의 “손정도 목사의 설교”, 등이 있다. 그리고 비교적 최근에 발표된 논문으로는 2009년에 『신학과 세계』에 발표된 이덕주 교수의 “통일 이후 한반도 신학 모색 -손정도의 기독교 사회주의를 중심으로-”와 단행본으로는 2020년 승실대에서 발행한 김홍수의 『손정도, 애국적 생애』 등이 있다. 이상과 같은 학술대회와 학술논문, 그리고 평전과 단행본의 발행으로 손정도 목사의 생애와 민족운동에 대한 이해가 깊어진 것이 사실이다. 그런데 그동안 연구자들은 대부분 손정도 목사의 생애에 나타난 목회사역과 민족운동, 그리고 기독교 사상에 대해 집중적으로 분석하여 왔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논문들은 손정도 목사의 기독교 신앙에 영향을 준 신학적, 교육적 배경이 무엇인지 정리한 논문은 아직 발견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지금까지의 연구 업적들을 토대로 손정도 목사의 기독교 신앙과 그 형성의 배경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논문은 첫째로 손정도 목사의 전기(前期) 생애⁴⁾에 나타난 개종과 신앙체험에

3) 2003년 10월 11일부터 16일까지 평양에서 <손정도 목사기념 평양학술대회>라는 제목으로 개최되었다. 김대중 정부시절 남북의 학술교류차원에서 진행된 이 학술대회는 손정도 목사의 차남인 손원태 박사가 참석 한 가운데 손정도 목사가 졸업한 감리교신학대학교의 총장을 비롯한 학자들과 북한의 조선과학자협의회가 공동주최하였다. 이 학술대회에서 남한측을 대표하여 감리교신학대학교의 김득중 총장은 “손정도 목사 연구의 종교사적, 민족사적 의미”를, 북한측에서는 최상순 조선사회과학자협의회 부위원장인 최성순이 “손정도 목사는 그리스도교 정신을 독립운동으로 승화시킨 애국의 거성”으로 기조강연을 하였다.

4) 지금까지 손정도 목사에 관한 연구를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그의 생애를 네 시기로 구분하여 연구하였다. 첫째 시기는 손정도 목사가 출생하여 개종과 종교체험을 하고 감리교 협성신학교에 입학할 때 까지 이다. 둘째 시기는 1909년 진남포 교회에서 첫 목회사역을 시작하여 1919년 3.1운동 직전 정동교회 담임목사로 봉직할 때이다. 셋째 시기는 3.1운동 직전에 상해로 가 임시정부에서 독립투쟁을 하던 시기이다. 넷째 시기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둘째로 이 시기에 형성된 기독교 신앙과 신학의 특징이 무엇이며, 그것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그 배경을 추적할 것이다. 따라서 본 논문은 손정도 목사의 생애의 네 시기 가운데 전기(前期)에 해당하는 두 번째 시기까지를 연구의 범위로 삼고자 한다. 즉, 제1기에 해당하는 개종 후 기독교에 입문하여 교육을 받았던 숭실중학과 감리교 협성 신학교 시절, 그리고 제2기인 국내목회와 중국선교사역 시기까지를 중점적으로 다루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손정도 목사의 생애 후기(後期)라 할 수 있는 상해 임시정부 활동과 길림에서 목회사역과 민족운동은 제외할 것이다.

II. 제1기: 손정도 목사의 개종과 신앙체험, 그리고 교육

1. 출생과 기독교로 개종

해석 손정도 목사는 1882년 7월 26일 평안남도 강서군 증산면 오흥리에서 출생하였다. 아버지 손형준(孫亨俊)과 어머니 오신도(吳信道) 사이에서 장남으로 태어난 손정도는 어려서부터 선비집안의 전통에 따라 과거시험을 보기 위해 유학(儒學)을 공부하였다. 13세가 되어서는 연상의 박신일과 결혼하였다.⁵⁾ 손정도가 기독교로 개종하게 된 계기는 1904년 그의 나이 23세였다. 손정도는 관리등용시험을 보러 가던 중 평양 인근의 ‘조씨 마을’에서 ‘조’ 씨 성을 가진 목사와의 만남이 계기가 되었다.

우연하게도 이 집은 목사 댁이었다. 상투에 갓을 쓰고 한학밖에 배운 것이 없는 청년이었으나 이 무렵 청년은 신학문에 대한 동경에 사로잡혀 있었다. 그런 청년에게 조 목사는 서구의 문화와 기독교 교리를 이야기했다. 평소

는 상해를 떠나 만주 길림에서 활동했던 시기이다.

5) 이덕주, “손정도 목사의 생애와 기독교 사상”, 34.

괄괄하고 열정적인 성품이었던 청년은 당장에 ‘몸을 떠는’ 감동을 맛보았다. 불과 하룻밤이 못돼 청년 손정도는 기독교에 몸을 맡기는 변신을 이루는 것이다. 이튿날 아침 조 목사는 손 청년의 상투를 자른다. 단발령에 자결로 저항하던 당시의 풍조 아래서는 혁명적인 일이다. 손 청년은 그 길로 평양 길을 포기하고 발길을 되돌린다. 마치 신들린 사람처럼 집에 들어 닥친 청년은 사당을 쳐부순다.⁶⁾

이상의 손원일의 증언에 의하면, 관리등용 시험을 보러 가던 손정도는 평양 인근의 조 목사 집에 머물면서 서구문화와 기독교 교리를 전해 듣고 하룻밤 만에 개종을 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1904년 당시 평양인근에서 활동하던 목사는 신계지역에서 목회한 김창식과 평양에서 목회한 이은승 두 사람밖에 없었다.⁷⁾ 따라서 이덕주는 손원일의 「회고록」에 나오는 ‘조 목사는 목사와 전도사의 구분이 모호하던 시절 강서읍에 정착하여 학교와 교회를 시작하여 후에 목사 안수를 받은 김재찬 목사를 잘못 보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한다.

또한 손정도의 급속한 개종도 손원일이 자신의 「회고록」을 한국일보에 연재하면서 처음에는 그 날로 집에 돌아와 사당을 부수는 ‘급속한’ 개종을 주장했으나, 한 달 후 연재에서는 큰 누님인 손성실의 증언을 인용하여 감리교 선교사인 무어(John, Z. Moore, 文約翰, 1874-1963)⁸⁾와 함께 집에 돌아와 사당을 부수었다고 수정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덕주는 손정도의 개종이 하룻밤 사이에 갑자기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점차적으로 무어 선교사로부터 교육을 받고 한 참 후에 이루어졌다고 주장한다.⁹⁾

6) 손원일, “나의 이력서”, 『한국일보』 1976년 9월 27일, 11월 6일; 이덕주, “손정도 목사의 생애와 기독교 사상”, 35에서 재인용.

7) 김홍수, 『손정도, 애국적 생애』 (서울: 숭실대학교 지식정보처, 2020), 23.

8) 무어 선교사는 1903년 조선에 들어와 평양과 그 인근지역인 삼화, 진남포, 강서, 용강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었다.

2. 송실중학에서의 종교적 증생의 체험

기독교로 개종한 손정도는 무어 선교사의 주선으로 1904년 평양 송실 학교에 입학하여 1908년 송실중학 제 5회로 졸업하였다. 27명의 졸업생 동기로는 조만식, 선우혁, 이성휘, 박상순 등이 있었다.¹⁰⁾ 그런데 손정도가 송실중학에 재학하던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이 일어났다. 1903년 감리교 선교사 하디(Robert A. Hardie, 河鯉泳, 1865-1949)에 의해 원산에서 시작된 부흥운동은 1907년 1월 평양에도 전파되었다. 조선에 대한하여 선교적 열매가 없어 고통 가운데 있던 하디 선교사는 자신의 죄를 회개 자복하고, 하나님의 용서의 은총을 체험하였다. 이 죄의 자복과 윤리적 갱신운동은 교파를 초월하여 내한 선교사들과 한국인들에게 전파되었고, 평양에서는 1907년 길선주 목사에 의해 대부흥운동으로 전개되었다. 이는 한국 기독교인들로 하여금 회개-증생-성결로 나아가는 기독교 신앙의 본질을 경험케 하였다.¹¹⁾ 손정도도 이때 강한 종교적 체험을 하게 된다. 1907년 2월 개학이 되면서 학교 전체가 성령의 역사에 사로잡혔다. 송실대학의 부교장으로 감리교 선교사였던 베커(Arthur L. Becker, 白雅德, 1879-1978)는 당시의 상황을 다음과 같이 보고하였다.

그해 가장 중요한 특징은 봄 학기 초에 발흥했던 부흥운동이었다. 2월 학교가 개강하기 바로 직전 겨울 남자사경회에 성령께서 권능으로 임하셨는데, 우리는 우리 학교에도 그 같은 축복이 임하기를 위해 이미 도착한 교사들과 학생들을 모아 오후 및 저녁 기도회를 시작했다. 바로 첫 집회 때부터 성령께

9) 이덕주, “손정도 목사의 생애와 기독교 사상”, 35.

10) 송실대학교 한국기독교박물관, 『송실교우회 회원명부』 (서울: 송실대학교 한국기독교 박물관, 2017), 126. 송실학교는 1906년 대학부가 설립되면서 송실중학과 송실대학으로 나누어지게 된다.

11) 이덕주, “초기 한국교회 부흥운동에 관한 연구”, 『세계와 신학』 (1999, 77.

서 현시하였음을 자세히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거의 모든 교사들이 학교가 개강하기 전에 사죄의 불을 경험하였다.¹²⁾

그런데 이 부흥운동 기간에 대부분의 집회에서 성령체험의 역사가 있었다.¹³⁾ 학생들은 개학 첫 주에 열린 기도회로 시작하여 2주간에 걸쳐 자신의 죄악을 통회하고 자복하며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였다. 이들은 압도하는 죄의식으로 흐느끼고 통곡하였으며 전율하였다. 그들은 “하나님의 현시 속에서 발가벗겨져 죄의 무시무시함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듯이 행동했다. 먼저 육체적인 비통 가운데 손과 머리로 바닥을 치며 통회하였고, 죄악 되고 정결치 못한 삶에 대한 뉘우침으로 흐느껴 울며 회개하였다.”¹⁴⁾ 손정도는 1920년대 갈림에서 목회하며 기록한 설교초(說教抄)에서 다음과 같이 이때를 회상하고 있다.

나는 一千九百七年에 奇異함을 보았사외다. 어떤 학생 둘이서 식후에는 없어서 밤 열두시 지나서 돌아옵니다. 그 이들은 기도하여 성신을 받고 지옥에 떨어지는 부모를 구원하였나이다. 그 아이는 썩어질 세상에 부패, 정욕과 죄악에 인격을 벗고 고결한 신의 성격을 지었습니다.¹⁵⁾

12) Arthur L. Becker, “M. E. North Report for 1907”; 박용규, “윌리엄 베어드와 한국선교”, 한국기독교문화연구소, 『베어드와 한국선교』 (서울: 숭실대학교 출판부, 2009), 76에서 재인용.

13) Mrs. W. M. Baird, *The Spirit Among Pyeng Yang Students*, “KMF III” (May, 1907), 65-67; 박용규, “윌리엄 베어드와 한국선교”, 77. 숭실학교의 교장이었던 윌리엄 베어드의 부인인 애니 베어드(Annie A. Baird)는 후에 *Korea Mission Field*에 기고한 글에서 당시의 상황을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다. 기숙사에 거주하는 몇몇의 학생들은 매우 놀라운 체험을 경험했다. 종종 며칠 동안 계속되는 무시무시한 죄의 탄식 후 용서, 평안의 느낌, 대단한 기쁨이 찾아들었고, 중보기도 가운데 권능의 세례가 찾아왔다.

14) William Newton, Blair, *God in Korea*, 65; 박용규, “윌리엄 베어드와 한국선교”, 79.

15) 이덕주, “손정도 목사의 생애와 기독교 사상”, 37 재인용, 위의 인용은 「손정도 목회수첩」에 나온 글로 필자가 현대어로 수정하여 기록하였다. 「손정도 목회수첩」은 유족들이 보관하고 있던 수장용(手藏用) 수첩으로 1924년부터 1927년까지 길림에서의 목회

이상의 진술에 의하면, 손정도는 1907년 대부흥운동 때에 “씩어질 세상
의 부패, 정욕과 죄악에서 벗어나 고결한 신의 성품에 참여”하기 시작했
다. 즉, 종교적 중생을 경험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그는 이때에 학교
기도실에서 밤을 지새우며 “종교적 정화의 세계를 찾고”, “감감한 조선의
구원을 위해 쉼 없이 기도”했다. 그리고 그는 “신의 광명한 빛이 비취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자애 깊은 눈물을 흘리며 자신에게 임하는” 신비
체험을 하였다.¹⁶⁾ 그런데 이때 손정도가 경험한 신비체험은 개인적 구원
차원의 신비체험뿐만 아니라 민족적 구원차원의 신비체험이기도 하였다.

그다음으로 나 자신 앞에 2천만의 남녀 동포가 하나도 빠짐없이 죽 늘어선
것이 보였다. 즉 사망에 빠지는 그들, 죄악의 멍에에 착고를 당한 그들을 구원
하고 해방함이 나의 책임이라고 보여줌이다. 그들을 보고 나는 또한 통곡하였
다. 그러나 깃브다 믿었다 할 만하다고 생각됨은 만능의 구주께서 나와 같이
하시기 때문에¹⁷⁾

손정도는 기도 중에 2천만 동포들이 죄악의 멍에 아래에서 구원받고
해방되는 민족구원의 사명을 지각하고 있었다. 영적인 차원의 개인구원
만이 아니라 정치사회적 차원의 민족구원을 본 것이다. 따라서 손정도는
숭실중학에 재학하고 있던 1907년 부흥운동 때에 종교적 신앙의 신비체
험 속에서 개인적 구원과 민족적 구원에 대한 소명을 자각하였고, 이것은
목회자로서의 소명으로 이어지게 된다.

기간 동안 손정도 목사가 기록한 가족상황, 설교초, 교회의 구역과 교인들의 상황을
담고 있다.

16) 최봉측, “故 海石 孫貞道 牧師 略傳(二)”, 『기독교 종교교육』, 1931. 8·9, 63.

17) 최봉측, “故 海石 孫貞道 牧師 略傳(二)”, 『기독교 종교교육』, 1931. 8·9, 63; 이덕주,
“손정도 목사의 생애와 기독교 사상”, 38-39에서 재인용.

3. 목회소명과 민족구국운동 참여

손정도는 1908년 송실중학을 졸업하고 곧바로 송실대학에 입학하였다. 그런데 손정도는 송실대학 2학년에 재학 중 목회자의 소명을 받았다. 그리고 곧바로 송실대학을 중퇴하고 감리교의 협성신학교에 입학하게 된다. 전술한 바와 같이 손정도가 목회자로서 소명을 받은 것은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의 영향이었다. 손정도 목사의 만주선교사역 동역자였던 배형식 목사는 손정도의 목회소명을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목사님은 어느 날 진성기도 하시고 성경 사도 20장 6-9절 말씀을 보시매 베드로의 주계 간구한 사정의 목사님이 동감하셨다. 국가가 있어야 할 자유 독립과 국민이 가져야 할 민족주의를 부르짖고 신앙자유의 용기로 화평한 복음을 전하며 진리와 정의로 선한 싸움을 싸와볼이란 결심으로 하느님께 약속 하셨다. 이때부터 목사님은 신앙부흥운동의 성사로 출발하시고 가시는 교회마다 오순절 성화(星火)가 일어나서 신자마다 중생의 은혜를 받으며 불신자가 회개하고 구원의 길을 찾는 자가 많았다.¹⁸⁾

배형식에 의하면, 손정도는 송실중학 재학 중 평양남산현교회의 새벽 기도회에서 목회자로서의 소명을 받았다.¹⁹⁾ 그런데 이 증언에 의하면, 손정도의 목회소명은 다분히 민족적 상황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보여 준다. 손정도 목사는 사도행전 1장 6-8절에 베드로가 예수께 질문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나이까?”에 동감하였다. 그리고 이 질문을 “대한제국의 국권이 회복될 때가 이때나이까?”로 재해석하였다. 그리고

18) 배형식, 『故 海石 孫貞道 牧使小傳』, 基督教建國傳團事務所, 1949, 2-3; 이덕주, “손정도 목사의 생애와 기독교 사상”, 39-40에서 재인용. 배형식은 사도행전 20장 6-8절이라 기록하고 있으나 이는 사도행전 1장 6-8절을 오기한 것이다.

19) 이덕주, “일제하 기독교 민족운동과 사회주의,” 『한국기독교와 역사』 16 (2000), 76.

그는 “그때와 기한은 알 수 없지만, 우리 민족이 성령을 받고 능력을 얻어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되면 때와 기한을 정하시는 하나님께서 독립의 때를 단축시켜 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얻었다”²⁰⁾ 즉, 기독교인들이 복음의 증인이 되어 민족구원에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의 정치적 독립을 앞당겨 주실 것으로 믿었던 것이다. 따라서 손정도의 목회 소명은 개인의 영적구원, 민족구원, 그리고 민족의 독립을 하나의 구원사건으로 보았던 것이다.

한편 손정도는 감리교 협성신학교에 입학한 후 구체적으로 민족구국운동에 가담하기 시작하였다. 손정도는 협성신학교에 입학한 후 진남포에 있는 신흥리교회의 전도사로 부임하여 목회를 시작하였다. 그리고 전덕기 목사가 시무하고 있는 상동교회에도 출석하였다. 당시 상동교회는 개화기 우리 민족의 대표적 선각자들인 이승만, 이시영, 이동녕, 이준, 장지영, 조승한, 노백린, 최남선, 이갑, 이필주 등이 모여 민족의 장래를 고민하고 친교를 나누었던 장소였다.²¹⁾ 이들 선각자들은 상동교회가 운영하는 상동청년회와 그 부속기관인 상동청년학원에서 모임을 가졌기 때문에 이들을 「상동파」라 지칭하였다.

손정도는 협성신학교 재학 중 상동교회에 출석하면서 자연스럽게 「상동파」에 가담하였고, 이곳에서 본격적으로 구국운동과 민족운동에 발을 들여놓은 것으로 보인다. 특히 기호지역 인사들을 중심으로 구성되었던 「상동파」는 도산 안창호가 1907년 미국에서 귀국하여 이승훈을 비롯한 서북지역의 인사들과 연계되면서 비밀결사조직인 「신민회」로 발전하였다.²²⁾ 아마 이때에 손정도도 안창호와 만나 「신민회」의 일원이 된 것으로

20) 이덕주, “손정도 목사의 생애와 사상”, 40에서 재인용.

21) 이만열, “한일기독교인의 민족의식 형성과정”, 『한국기독교와 민족운동』 (서울: 도서출판 성보, 1986), 67.

22) 유동식, 『정동제일교회의 역사(1885-1990)』 (서울: 기독교대한감리회 정동제일교회, 1992), 162.

추정된다. 이러한 이유는 1910년 5월 서울 정동교회에서 개최된 감리교 연회에서 손정도가 중국선교사로 파송 받아 북경에 가서 활동하면서 안창호와 서신왕래를 통해 국내외의 독립운동 계획을 주고받고 있었기 때문이다.²³⁾

III. 제2기: 국내 목회와 중국 선교사역

1. 진남포 목회와 중국 선교사역

손정도 목사는 훌륭한 목회자요 복음 선교사였다. 그러나 동시에 민족 독립운동가였다.²⁴⁾ 손정도는 협성신학교 재학 중 ‘이동식 수업’으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진남포의 신흥리 교회에서 전도사로 시무할 수 있었다. 이때 손정도는 “설교 때마다 일제의 부당한 침략을 규탄하였고, 교회에서의 그의 목회는 곧 민족독립운동이었다.”²⁵⁾ 이렇게 진남포에서 목회사역을 처음으로 시작하였으나 손정도 목사가 공식적으로 전도사로 임명을 받은 것은 1909년 6월 미 감리교 선교연회에서였다. 선교연회는 손정도 전도사에게 진남포와 삼화 구역 전도사로 임명하였고, 따라서 그는 진남포의 신흥리 교회를 담임하면서 인근 주변의 교회들을 순회하며 목회사역을 감당하였다. 그런데 감리교 연회는 이때에 ‘내외국선교회’를 창립하고 중국인 선교를 결의하였다.²⁶⁾ 손정도는 중국선교를 통해 국권을 회복할 기회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고 스스로 중국선교사로 지원하였다. 그래서 진남포에서의 목회는 짧은 1년의 기간으로 끝나고, 1910년 5월 정동교회에서 열린 미감리회 연회에서 손정도는 ‘중국선교사’로 파송을

23) 이덕주, “일제하 기독교 민족운동과 사회주의”, 81-83.

24) 김석준, “우리나라 반일민족해방운동과 손정도 목사”, 김득중 편, 『손정도 목사의 생애와 사상』 (서울: 감리교신학대학교출판부, 2004), 131.

25) 김석준, “우리나라 반일민족해방운동과 손정도 목사”, 132.

26) “선교회 취지”, 『그리스도회보』 1911. 12. 15.

받았다.²⁷⁾

손정도는 곧바로 1910년 7월 북경으로 들어가 선교사역을 준비하였다. 그러던 중 그 곳에서 신민회 회원인 조성환(趙成煥)을 만나게 된다. 조성환은 당시 「신민회」의 핵심 인사로 안창호, 양기탁, 이동녕, 이동휘, 이회영 등 신민회 지도자들과 더불어 북경에서 항일투쟁을 전개하기 위해 민족운동 기지를 건설하고자 노력하고 있었다. 특히 이들은 만주에 토지를 구입하여 항구적인 독립군 기지를 만들어 독립전쟁을 수행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이를 위해 국내의 교회들에게 기도회를 요청하였고, 독립전쟁 시에 각 교회 청년회가 일본인들을 축출하도록 요청하기도 하였다. 이덕주는 이때 손정도가 「신민회」 회원이었던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으나, 그가 1911년 12월 25일 북경에서 안창호에게 편지한 내용을 근거로 「신민회」 조직과 깊은 연관이 있었다고 주장한다.²⁸⁾ 이 주장은 결과적으로 손정도가 「신민회」 조직과 연계된 민족운동에 깊게 연류 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이렇게 북경에서 선교사역과 민족운동을 은밀히 진행하던 손정도는 1911년 6월 귀국하여 서울에서 개최된 미감리교 선교연회에 참석하였다.²⁹⁾ 손정도는 이 연회에서 집사목사로 안수를 받았고,³⁰⁾ 다시 중국으로 돌아가는 길에 평양의 남산현교회가 주최한 손정도 목사 환영식에 참석하기도 하였다.³¹⁾ 북경에 도착해서는 중국인과 조선인 교포들을 대상으

27) “미감리회 매년회 일기,” 『그리스도회보』 1911. 1. 31.

28) 이덕주, “손정도 목사의 생애와 기독교 사상”, 44-45. 이 편지에서는 손정도가 1910년 봄 제중원에서 안창호를 만났고, 1910년 여름 북경에서 조성환을 통해 안창호에게 연락을 취하고 있으며, 1911 봄 안악사건 관계자들과 평양의 대성학교와 기독교 기관들의 상황을 안창호에게 보고하였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손정도와 안창호는 ‘형님과 동생’ 관계로 안창호의 해외 망명계획을 알고 있었고, 따라서 손정도가 안창호, 양기탁, 전덕기 등이 주도한 신민회 조직과 연계되어 있었다는 것이다.

29) “년회순서,” 『그리스도회보』 1911. 6. 30.

30) “년회—축,” 『그리스도회보』 1911. 7. 15.

로 전도사역을 하였고, 본국에 있는 교회와 교우들에게 중국선교 지원과 전도를 촉구하는 편지를 보내기도 하였다. 이 편지에서는 “그리스도 왕의 명령을 좇아서 어서 추수하러 나아갑세다”, “농부들은 속히 농귀를 메이고 어서 추수하러 나아갑세다”³²⁾고 하여 농부의 행위를 복음전도를 통한 영혼 구원으로 묘사하고 있다. 이러한 손정도의 선교지원 편지에 응답하여 국내교회들은 추수감사절에 특별헌금을 실시하기도 하였다.³³⁾ 이러한 손정도 목사의 활동은 목회자로서 복음전도를 통한 영혼구원에 대한 그의 열정을 엿 볼 수 있다. 이처럼 손정도 목사는 목회사역 초기부터 목회와 선교사역, 그리고 민족독립을 위한 민족운동을 통합적으로 진행하였다.

1912년 3월에도 손정도 목사는 잠시 귀국하여 상동교회에서 열린 미감리회 연회에 참석하여 선교현황을 보고하였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연회로부터 “청국 봉천 북방 하얼빈 남방” 지역의 선교사로 다시 파송을 받았다. 그런데 만주지역으로 손정도 목사가 재파송을 받은 것은 선교사역 뿐만 아니라, 민족독립운동을 실천하려는 손 목사의 강한 의지에 따른 것이었다.

그런데 손정도 목사가 1912년 3월 연회에 참석했을 때는 일제가 국내의 「신민회」 조직을 일망타진하기 위해 105인 사건을 일으켜 신민회 회원 대부분을 체포 구금하여 재판을 진행하고 있었다. 「신민회」와 연관되어 있던 손정도 목사가 105인 사건 때 체포 구속되지 않았던 것은 일제가 「신민회」 회원들을 집중적으로 체포한 1911년 8월부터 12월 사이에 만주와 하얼빈에 있었기 때문이었다.³⁴⁾

31) “一영一전,” 『그리스도회보』 1911. 6. 30.

32) 손정도, “턴시가 변천함,” 『그리스도회보』 1911. 11. 15.

33) “미감리회 특별광고,” 『그리스도회보』 1911. 10. 30; 이덕주, “손정도 목사의 생애와 기독교 사상”, 48.

2. 가츠라 암살음모사건과 진도 유배

손정도 목사는 1912년 연회를 마치고 북만주와 하얼빈 지역에서 중국 인과 교포들을 대상으로 한 복음전도와 독립운동에 열중하던 중 「가츠라 암살음모사건」이 일어났다. 손정도 목사는 이 사건의 주모자로 일경에 의해 체포되어 갖은 고문과 악행을 당하였다. 가츠라는 청일전쟁에 참전한 군국주의자로서 청일전쟁 후 대만총독을 거쳐 두 번(1901-1905년, 1908-1911년)이나 일본수상을 역임한 인물이었다. 그는 1905년 7월 미국 육군장관 테프트와 소위 ‘가츠라-테프트 조약’을 맺어 미국의 필리핀 지배권을 묵인해주는 대신 일본의 한국 지배를 용인하도록 하는 을사늑약을 맺게 한 장본이었다.³⁵⁾

이러한 가츠라가 1912년 7월 12일 러시아와 만주와 몽고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일본정부의 특사로 러시아로 가던 중 하얼빈을 경유하게 되었다. 마침 국내는 초대 조선총독 데라우찌를 암살 모의하였다는 명목으로 일제가 105인 사건을 일으켜 「신민회」 회원들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에 있었다. 일제는 데라우찌 뿐만 아니라 러시아로 가는 가츠라도 암살하려 한다고 러시아 경찰을 설득하여 하얼빈 주변의 조선인들을 대대적으로 체포 구금토록 하였다. 조선인들은 처음에 러시아 유치장에 수감되었으나 일제의 요청으로 일본영사관으로 옮겨졌다. 최봉측에 의하면, 손정도 목사는 시베리아로 파송된 장로교 선교사 최관홀 목사를 포함 약 6백여 명의 조선인들과 함께 러시아 유치장에 구금되었다고 한다. 러시아 정부는 가츠라가 하얼빈을 무사히 통과한 후, 석방의 조건으로 정교회로 개종을 요구하였으나 손정도 목사는 이를 거부하여 일행 27명과 함께 가츠라 암살혐의로 일본영사관에 넘겨졌다고 한다.³⁶⁾

34) 이덕주, “손정도 목사의 생애와 기독교 사상”, 49.

35) 김석준, “우리나라 반일민족해방운동과 손정도 목사”, 132.

그 후 손정도 목사는 일본영사관에서 3개월 취조를 받고 일행 23명과 함께 조선총독부 경무부로 압송되었다. 이 과정에서 손정도 목사는 암살모의 혐의를 받고 체포되어 고문을 당하였다. 더구나 이때 손정도 목사는 암살모의 '수괴'(首魁)로 지목되어 갖은 고문을 받아 얼굴에 흉터가 생기고 다리에 치명적인 상처를 입었으며, 심장질환까지 얻었다고 한다.³⁷⁾ 그러나 고문 중에도 손정도 목사는 깊은 신앙의 '신비체험'을 경험하였다.

내 생명이란 것도 이제는 몇 초가 남지 않았다고 생각 될 때에 돌무더기 속에서 최후를 마치던 성 스테반으로 위시하여 성 베드로, 성 바울. 오! 그리고 또 온 인류의 죄를 위시하여 하느님의 높으신 아들로 자기 몸을 십자가에 달리시던 그리스도 예수를 생각하였다. 이들은 벌써 천여 년 전에 이러한 앞길을 모본으로 보여주셨고나 하고 느껴가며 기도하였다. 응당 이때처럼 그들의 순교한 진경(眞境)을 좀 더 갖가히 가본적은 없다. 오! 과학문명을 믿는 세상 사람들은 아마도 나다려 미쳤다 하리라. 그러나 이는 나의 분명한 목시오 체험임을 어찌하라!³⁸⁾

이처럼 손정도 목사는 일경에 체포되어 모진 고문을 통해 죽음의 고통을 느끼는 순간, 돌로 최후를 마친 스테반, 베드로와 바울,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깊은 신앙의 체험을 했던 것이다. 이로써 그의 신앙의 깊이는 더욱더 깊어졌고, 일제에 대한 저항의지도 줄어들지 않았다. 서울로 압송된 23명 가운데 20명은 석방되었다. 그러나 손정도 목사는 한중전(韓重鎗)과 함께 재판을 받고, 1912년 11월 '보안조례

36) 최봉측, “故 海石 孫貞道 牧師 略傳(二)”, 『기독교 종교교육』 1931. 8·9, 64-65; 이덕주, “손정도 목사의 생애와 기독교 사상”, 50.

37) 김석준, “우리나라 반일민족해방운동과 손정도 목사”, 132-33.

38) 최봉측, “故 海石 孫貞道 牧師 略傳(二)”, 『기독교 종교교육』 1937. 10. 16-17; 이덕주, “손정도 목사의 생애와 기독교 사상”, 51에서 재인용.

위반' 혐의로 진도로 1년의 유배형을 받게 되었다.³⁹⁾ 최봉측은 서울 경시청이 손정도 목사의 가르라 암살음모 혐의의 증거를 찾지 못하자, 서간도 독립단체의 군자금 모금사건에 연류된 것으로 조작하고자 하였으나 이 역시 혐의를 찾지 못하여 결국 '보안조례위반'을 적용하였다고 한다.⁴⁰⁾ 한편 김석준도 손정도 목사가 「무관학교설립기금모금사건」 혐의로 일제 경찰에 다시 체포되어 가혹한 고문을 받고 재판에 회부 되어 전남 진도에서 2년 동안 귀양살이를 하였다고 주장하였다.⁴¹⁾

진도 유배기간 중에도 손정도 목사는 복음전도와 독립정신을 고취하는 목회자로서의 사명을 다하였다. 이미 진도에는 105인 사건에 연류되어 유배를 온 이유필과 한진석이 있었다. 손정도 목사는 기독교인인 이들과 함께 신앙집회를 시작하였다. 한중전의 증언에 의하면, 진도에 손 목사의 소문이 퍼져 수십 리 밖의 교우가 찾아오기도 하고, 순사 형사와 읍내의 청년도 매일 찾아와 성경을 비롯한 공부를 하였으며, 찬송가도 부르고 기도도 하며 수십 리 밖에 있는 예배당도 가게 되었다고 한다.⁴²⁾ 이처럼 손정도 목사는 진도 유배기간 신앙은 깊어졌다.

이렇게 진도 유배를 1년간 보낸 손정도 목사는 1913년 11월 5일 한중전과 함께 풀려났다. 10일에 서울로 올라와 손정도 목사는 서울 생활을 시작하였다. 그러던 중 이듬해인 1914년 6월 손정도 목사는 정동교회에서 개최된 감리교 연회에서 동대문교회 담임목사로 파송을 받았다.⁴³⁾ 그는 동대문교회에서 1년간 시무한 후, 이듬해인 1915년 4월 현순 목사의 뒤를 이어 정동제일교회의 담임목사로 취임하였다.⁴⁴⁾ 손정도 목사는 정동제일

39) 『그리스도회보』 1913. 12. 1.

40) 최봉측, “故 海石 孫貞道 牧師 略傳(二),” 『기독교 종교교육』 1937. 10. 18.

41) 김석준, “우리 나라 반일민족해방운동과 손정도 목사”, 132-33.

42) 이덕주, “손정도 목사의 생애와 기독교 사상”, 53-54에서 재인용.

43) 『조선미감리교회년회록』, 1914. 12.

44) 『조선미감리교회년회록』, 1915. 12.

교회에서 3년간 목회하면서 교회를 크게 부흥시키고 교회를 증축하였다. 특히 예배당 안에 남녀를 구분하는 휘장을 없애기도 하였다. 손정도 목사의 부흥목회로 정동제일교회는 신도 수가 2천 3백여 명에 이르렀고 전국적으로 명성이 자자하였다.⁴⁵⁾ 그는 특히 이 기간에 중국 선교사로 사역하면서 중단했던 신학수업을 계속하여 1917년 감리교 협성신학교 제 5회로 졸업하였고, 이듬해인 1918년에는 ‘장로목사’로 안수를 받았다.⁴⁶⁾

IV. 전기(前期) 목회사역과 민족운동의 신학적 특징과 그 형성 배경

1. 종교개혁적 복음주의 신학과 그 형성 배경

해석 손정도 목사의 생애는 철저한 종교개혁적인 복음주의 신학에 입각하여 복음전파와 개인구령에 헌신한 생애였다. 손정도는 숭실중학 재학 시절 평양 대부흥운동을 통하여 철저한 종교적 신비체험을 하였다. 그는 숭실중학의 부흥집회를 통하여 감리교 출신의 강신화, 고종철과 더불어 ‘성령강림’을 강하게 체험하고, 통회자복하며 회개하는 중생체험을 하였다.⁴⁷⁾

손정도는 당시 “씩어질 세상의 부패와 정욕과 죄악에서 벗어나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되었다. 또한 학교 기도실에서 밤새도록 “종교적 정화의 세계”를 찾고, “신의 광명한 빛이 비치는 가운데 예수가 자애 깊은 눈물을 흘리며 자신에 임하는 신비체험”을 하였다.⁴⁸⁾ 죄 용서라는 종교적

45) 정동제일교회역사편찬위원회, 『정동제일교회 구십년사』, 148-150.

46) 이덕주, “손정도 목사의 생애와 기독교 사상”, 54-55.

47) 이덕주, 『백아덕과 평양숭실』 (서울; 한국기독교문화연구원, 2017), 135-136.

48) 최봉측, “故 海石 孫眞道 牧師 略傳(二)”, 『기독교 종교교육』 1931. 8·9, 63.

정화와 개인적 구원사건을 체험한 것이다. 이것은 소위 종교개혁적 복음 이해를 통한 개인구원의 체험이었다.

이렇게 부흥운동을 통하여 중생을 체험한 손정도는 고종철, 강신화 등 ‘감리교’ 학생들과 함께 대부흥운동을 전국적으로 확산시켰다.⁴⁹⁾ 특히 손정도는 1907년 3월 인천에서 내리교회 부흥회를 인도하여 인천과 강화지역에 부흥운동을 확산시켰다.⁵⁰⁾

뿐만아니라, 손정도의 종교적 신비체험을 통한 종교개혁적 복음이해는 그가 목회자의 길을 가도록 하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 그는 송실대학을 중퇴하고 1908년 감리교의 협성신학교에 입학하였고, 2학년에 재학 중 진남포교회의 전도사로 부임하여 첫 목회사역을 시작하였다. 그는 이때부터 ‘신앙부흥의 성사(聖使)’가 되었고, 설교하는 교회마다 오순절 성령의 불이 일어나 중생의 은혜를 받으며 불신자가 구원받는 일이 많았다. 그래서 다른 교역자들도 손정도 목사의 설교원고를 필사하고 설교 동작을 그대로 모방하여 ‘손정도식 부흥회’를 개최하여 구원받는 사람들을 더 하였다.⁵¹⁾ 그는 당시 개인구원을 위한 열정적인 복음전도자였다.

그는 정동교회 담임목사로 있으면서 교회를 부흥시켜 성도가 2천 3백여 명에 이르기도 하였다. 그런데 손정도는 정동교회에서 목회하던 1916년 10월 4일 행한 설교에서도 루터의 ‘이신칭의론’에 입각한 종교개혁적 복음이해를 드러내고 있다.

믿음은 생명이니 믿음이 확실한 자는 생명이 있고 믿음이 없는 자는 생명도 없나니 생명 있는 자 능히 사람을 살리고 생명이 없는 자는 자기도 살릴

49) 이덕주, 『백아덕과 평양송실』, 137.

50) C. S. Deming, “Wesley Church Chemulpo”, *KMEC* 1907, 35.

51) 배형식, “故 海石 孫貞道 牧師小傳”, 3에서 재인용. 이 글은 필자가 현대어로 변경하여 수록하였다.

수가 없는 것이라. 제자들이 만일 주를 믿었다면 자기들의 기도로서 능히 사귀를 내어쫓고 그 아해를 살렸을 것이나 자기들 마음 속에 믿음이 없었으니 어찌 남을 살릴 능력이 있으리오.⁵²⁾

여기에서 그는 ‘믿음은 생명’이기에 믿음이 있는 자만이 능히 자신과 다른 사람, 교회를 살릴 수 있다고 강조하였다.⁵³⁾ 이처럼 손정도는 종교 개혁적 복음주의 신앙과 신학에 입각하여 개인구령에 전념한 목회자였다. 또한 목회적 소명에 열정적으로 헌신한 복음의 전파자였다. 그런데 이러한 그의 신앙과 신학은 그가 회심한 후 곧바로 입학한 숭실중학의 교육에서 태동하였다. 당시 숭실중학은 북장로회 선교사인 윌리엄 베어드(William M. Baird)가 1897년 설립한 학교로 복음주의적 신앙과 신학에 기초하여 철저한 기독교 신앙교육을 실시하는 학교였다. 베어드는 숭실학교 교장으로 있으면서 보수적인 정통주의 신학과 청교도적 경건주의에 입각한 신앙적, 윤리적 엄격성을 강조하였다. 또한 대부분의 학생자원운동 출신의 선교사들과 마찬가지로 개인구령과 복음전도에 대한 열정, 성경중심적, 부흥회적 신앙의 모습을 지니고 있었다.⁵⁴⁾

특히 베어드 선교사는 1897년 조선선교부의 요청을 받아 장로교의 공식적인 교육정책인 〈우리의 교육정책(Our Educational Policy)〉을 입안했는데, 이는 기독교학교의 목적을 토착교회의 설립과 교회를 섬길 복음전도자 양성에 두었다. 특히 〈우리의 교육정책〉은 C조 3항의 부연설명에서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52) 조이제, “손정도 목사의 설교,” 『세계의신학』 50 (2001), 191.

53) 조이제, “손정도 목사의 설교,” 193에서 재인용. 원문은 필자가 현대어로 변경하여 수록하였다.

54) 박용규, 『한국장로교사상사』 (서울: 총신대학교출판부, 2002), 71.

만일 학생들이 학교의 첫 번째 원칙에 따른 충실한 훈련을 받는다면, 그가 농부나 대장장이나, 의사나, 교사나, 또는 정부의 각료 등 어떤 직업을 가지게 되더라도, 그들은 모두 복음을 적극적으로 전파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선 교사 교사라면 우선 학생들을 복음전도자들로 만들어 내야 합니다. 만약 이런 일에 실패한다면 그가 교육가로서 성공했는지 몰라도 그는 선교사 교사로서는 실패한 것입니다.⁵⁵⁾

이상의 〈교육정책〉의 내용은 기독교학교의 운영과 설립의 목적이 학생들이 훗날 사회에 진출하여 지도자로서 활동할 때, 어느 분야에서 일하든지 그들이 확고한 신념과 열정을 가진 복음의 전파자로서, 설교자로서의 자질을 갖추어야 함을 나타내고 있다.⁵⁶⁾ 따라서 이러한 내용의 〈교육정책〉은 열정적으로 복음전도를 이상으로 하는 베어드의 복음주의적 신앙과 신학에 기초한 것이었으며, 이는 그가 설립한 평양 숭실학교에서 구체적으로 실천되었다.⁵⁷⁾ 따라서 손정도 목사가 평생의 목회현장에서 견지했던 종교개혁적 복음이해와 개인구원의 신앙은 숭실재학 시절 대부흥운동을 통해 체험한 종교적 정화사건과 복음전도를 이상으로 했던 베어드의 교육이념에 영향을 받아 그 기초를 형성한 것이라 할 수 있다.

2. 역사참여적 민족구원의 신앙과 그 형성 배경

손정도 목사는 숭실중학 재학 중 평양대부흥운동과 남산현교회 기도회에서 개인구원과 민족구원의 종교적 체험을 하고, 감리교 협성신학교에 입학하였다. 그는 감리교 협성신학교 재학 중이던 1910년 5월 감리교 선

55) 리차드 베어드, 숭실대학교 뿌리찾기위원회 역주, 『윌리엄 베어드』 (서울: 한국기독교 문화연구원, 2016), 220.

56) 김명배, 『세계교회사 전통에 비추어 본 한국기독교사』 (서울: 북코리아, 2010), 204; 『숭실대학교 100년사』, 제1권, 53 재인용.

57) 김명배, “윌리엄 베어드와 숭실대학”, 131.

교연회에서 중국 선교사로 파송 받았고, 그 해 7월 북경에 도착하여 선교를 준비하던 중 「신민회」 회원인 조성환을 만나 역사참여적 민족운동에 본격적으로 가담하기 시작하였다. 1912년에는 북만주와 하얼빈 지역에서 중국인들과 교포들을 대상으로 복음전도사역과 독립운동을 수행하던 중 소위 「가즈라 암살음모사건」의 주모자로 지목되어 체포되어 1912년 11월 ‘보안조례위반’으로 재판을 받고 진도에 유배형을 당하였다.

손정도 목사는 유배에서 풀려 난 후 잠시 정동교회에서 담임목회를 하였으나, 1919년 삼일운동 직전 담임목사직을 사임하고, 이화학당 교사였던 하란사와 함께 북경으로 가 모종의 독립운동을 도모하였다.⁵⁸⁾ 그러나 하란사가 갑자기 병사하자, 그는 현순의 인도를 받아 상해로 가 임시정부 수립의 산파역을 담당하였다. 그 후 손정도 목사는 상해임시정부 의정원의장, 임시정부 평정관, 의정원법 기초위원에 선임되어 임시의정원의 조직과 제도를 정비하였고, 1921년에는 교통총장에 임명되어 임시정부의 행정에도 가담하였다.⁵⁹⁾ 그는 상해에서 무장독립투쟁을 위해 군인양성과 군비조성을 목적으로 결성된 단체인 노병회의 발기인으로 참여하였고, 한인교민사회의 교육을 위해 ‘대한교육회’와 인성학교 설립에 참여하여 교육구국운동을 펼치기도 하였다. 이후 길림에서도 목회사역과 민족독립운동 사역을 병행하였다.

그런데 이러한 손정도 목사의 역사참여적 신앙은 개종 후 평양의 남산 현교회에 출석하면서 이미 형성되기 시작하였다. 미감리회 한국선교회는 1897년 ‘엠틀청년회’(Epworth league)를 설립하고 각 교회별로 지회를 설립하였다. 이렇게 조직된 엠틀청년회는 선교와 교육, 친교와 봉사 활동을

58) 「익세보」(1919.3.11.); 김홍수, “하란사, 손정도, 현순의 애국적 생애,” 『기독교사상』 711 (2018), 6. 하란사는 “비밀리에 파리평화회의에 한국 사정을 알릴 계획”이었고, 손정도는 하란사의 밀항을 돕는 일이었다.

59) 김명배, “상해임시정부 수립과 기독교민족운동가들,” 『한국교회사학회지』 (2019), 37.

하다가 러일전쟁 직후 점차 사회와 정치현안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하면서 항일 민족운동단체로 변모하였다.⁶⁰⁾ 평양 남산현교회에서는 ‘굿셸청년회’(Goodshell chapter)라는 명칭으로 조직되었는데, 서울과 마찬가지로 사회와 정치현안을 토론하여 항일민족의식을 고양하는 요람으로 이들은 항일의식을 교육열기로 연결시키고 있었다. 그래서 1905년 4월 남산현교회 청년들은 자체적으로 중학교과정의 청년학교를 설립하였고, 감리교 평양선교지부의 교육전담 선교사 베커에게 정식으로 기독교 중학교의 설립을 요청하고 있었다.⁶¹⁾

그런데 숭실중학 입학이전 청년 손정도는 남산현교회의 청년회에 출석하면서 베커(Arthur L. Becker) 선교사로부터 신앙의 지도받고 있었다. 이러한 사실은 평양지역에서 교육사업에 있어서 장감연합이 결정되자, 베커 선교사가 1905년 10월 남산현교회 청년학원에서 가르치던 한국인 교사 조설과 함께 손정도와 김득수를 비롯한 22명의 학생들을 데리고 숭실중학에 합류하였다는 사실로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⁶²⁾ 따라서 청년 손정도는 남산현교회의 ‘굿셸청년회’에 출석하면서 사회와 정치현안을 토론하면서 항일민족의식을 배웠고, 역사참여적 민족구원의 신앙을 자연스럽게 형성하였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손정도가 입학한 숭실중학은 서북지역을 대표하는 민족운동가를 배출하는 요람이었다. 그리하여 그의 역사참여적 민족구원의 신앙은 평양 숭실중학 재학시절 더 강화되었다. 숭실의 설립자 윌리엄 베어드 선교사는 일찍이 1897년 〈우리의 교육정책〉에서 “미션스쿨의 목적을 조선교회의 발전과 조선인들에게 적극적으로 기독교인으로서의 사명을 다할 수

60) 이덕주, 『백아덕과 평양숭실』 (서울: 한국기독교문화연구원, 2017), 70.

61) 이덕주, 『백아덕과 평양숭실』, 73. 평양의 시민대표단은 “우리는 일본의 노예가 되고 싶지 않다. 우리 자녀들에게 신식교육을 시켜 달라”며 베커에게 중학교 설립을 요청하였다.

62) 이덕주, 『백아덕과 평양숭실』, 186.

있도록 하는 지도자를 양성하는 일”이라고 말하고, ‘토착적 기독교교육’ 즉, “조선어로 교육하는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⁶³⁾ 이는 자연스럽게 송실인들에게 민족의식과 국가의 자주, 독립사상을 고취 시켰으며, 송실을 민족운동의 본거지가 되도록 하였다.

그리하여 송실학교는 일찍이 1905년 을사늑약으로 일제의 보호국이 되자, 일부 학생들은 서울에 올라와 연좌시위에 참여하였고, 1907년 헤이그 밀사사건으로 고종황제가 강제퇴위 되고, 군대가 강제 해산되어 실질적인 ‘식민통치 시기’에 접어들자, 항일민족저항운동이 거세게 일어났다. 손정도가 재학 중이던 1907년 9월에는 가을학기 직후 일부 교사퇴진과 일부 과목 교체를 요구하는 ‘학생 스트라이크’가 벌어졌는데, 이는 학교 밖에서 활기차게 전개되고 있던 항일의병운동과 반일 민족저항운동에 호응하는 성격의 시위였다.⁶⁴⁾ 뿐만아니라, 항일민족의식은 송실중학의 교육 커리큘럼에서도 나타났는데, 베커가 지도한 체육활동 과목은 군사훈련처럼 시행되었다.

우리는 학생들에게 의무적으로 매일 30분 동안 군사훈련과도 같은 체육활동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몇몇 학생은 전국고등학교 체육대회 출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기 송실 학생들의 달리기와 높이뛰기 실력이 일취월장해서 미국대학생 실력에 전혀 뒤지지 않습니다. 체육방면의 교육도 상당히 중요합니다.⁶⁵⁾

따라서 당시 송실학교에서 교육은 받은 길진형과 김인준, 정인파, 홍성익 등 졸업생들은 105인 사건과 삼일운동에 연루되어 옥고를 치렀고, 재

63) 김명배, 『세계교회사 전통에 비추어 본 한국기독교사』 (서울: 북코리아, 2010), 230.

64) 이덕주, 『백아덕과 평양송실』, 163.

65) “Pyeng Yang High School”, *KMEC* 1907, 53-54.

학생 중에는 손정도와 조만식, 선우혁 등 ‘민족의식’이 강한 학생들이 있었다. 이들은 체육활동을 군사훈련처럼 진행함으로 국권회복을 향한 ‘애국정신’을 표현한 것이었다.⁶⁶⁾ 그러므로 손정도가 숭실중학 재학 시절 경험한 종교적 신비체험은 단순히 개인구원의 차원에만 머문 신비체험이 아니라, 조선의 구원이라는 민족적 구원의 신비체험으로 승화되었던 것이다. 그래서 이덕주는 손정도에게는 기독교 신앙이 민족운동과 서로 배치되거나 충돌하는 상극(相剋)의 개념이 아니라 서로 보완하고 연결되는 상생(相生)의 개념이라고 주장하였다.⁶⁷⁾

요약하자면, 손정도 목사는 남산현교회 ‘굿셀청년회’ 출석하면서 항일 민족의식이 형성되었고, 숭실중학에 입학하여 역사참여적 민족구원의 신앙으로 나아갔다. 그는 숭실학교 기도실과 남산현교회 새벽기도회에서 개인구원과 민족구원에 대한 소명을 자각하였고, 일생을 목회자와 민족 독립운동가로 살게 하는 원동력을 얻었다. 특히 ‘조선어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숭실학교의 ‘토착적 기독교교육’은 손정도 목사에게 민족의식과 국가의 자주, 독립사상을 고취 시켰던 것이다.

3. 사회 개혁적이고 변혁적 신앙과 그 형성 배경

해석 손정도 목사는 사회 개혁적이고 변혁적 신앙의 소유자였다. 그는 만주 길림에서 이상촌 건설운동을 통해 가난 속에서 살아가던 한인들의 삶을 돌보는 개혁적이고 사회변혁적 목회를 실시하였다. 1923년 길림에 정착하여 만주 지역에서 어렵게 사는 한인들을 목도하고, 이들의 생활을 개선하고 안정적 독립운동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이상촌 운동을 시작하였다. 그리하여 액목현과 토지를 구입하기도 하였고, 농민호조사를 설립

66) 이덕주, 『백아덕과 평양숭실』, 157.

67) 이덕주, “손정도 목사의 생애와 사상”, 40.

하여 한인농민들의 생활개선은 물론 독립자금의 안정적 마련을 위해 노력하였다. 이러한 손정도 목사의 실질적인 경제적 삶의 개선을 위해 노력한 개혁적이고 사회변혁적 신앙은 청년시절 그의 회심 사건에서 잉태되어 평양대부흥운동의 정화사건을 거쳐 1908년 상동교회에 출석하면서 그 자리를 잡았다.

손정도는 23세의 나이에 평양으로 가던 중 ‘조 목사’로부터 서구문화와 기독교 교리를 접하고 기독교로 회심하였다. 그는 이 회심 사건 후 집으로 돌아와 상투를 자르고, 마치 신들린 사람처럼 사당을 부수었다. 이러한 행위는 그가 초기 대다수의 한국기독교인들처럼 기독교로 개종한 후 기독교의 핵심교리인 유일신 사상과 십계명의 제 2계명인 우상숭배 거부에 근거한 것이었다. 이 종교윤리는 구한말기독교인들에게 개인은 물론 사회개혁과 변혁의 기본적 동력으로 작용하였는데,⁶⁸⁾ 손정도에게도 마찬가지였다.

그런데 손정도는 숭실중학교 재학 시절 평양대부흥운동을 체험한 후 본격적으로 삶의 윤리적 갱신으로 나아갔다. 그는 기도와 성경공부, 경건한 윤리적 실천의 삶을 사는 데 매진하였다.⁶⁹⁾ 더욱이 숭실중학 교장 배어드는 내한 선교사들 가운데 가장 강력하게 “철저한 안식일 준수, 조상숭배와 축첩 거부, 음주와 흡연, 도박의 금지” 등 청교도적 경건주의에 입각한 신앙적, 윤리적 엄격성을 요구했던 선교사였는데,⁷⁰⁾ 이 또한 손정도에게 영향을 주었다. 따라서 손정도는 대부흥운동을 체험한 후 개혁과 변화는 먼저 자신의 삶의 변화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68) 김명배, 『세계교회사 전통에 비추어 본 한국기독교사』, 147.

69) 이덕주, “기독교 신앙과 민족운동-손정도 목사를 중심으로,” 『세계의 신학』 (2000), 190.

70) 류대영, 『초기 미국선교사 연구』 (서울: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2003), 105-110.

우리가 이 일을 행하려면 인도하려는 자기가 먼저 주의 보혈로 씻음을 입어 흰 사람이 되어 하나님과 같이 완전하여야 될지니 만일 그렇지 못하면 우리가 전도할 때에 듣는 사람이 말하기를 나는 당신 같은 교인은 보지 못하였다 하리니 그런즉 우리의 언어와 행동과 처사로서 남에게 전도하지 못하면 도저히 남을 주께로 인도할 능력이 없으리니 고로 자기가 먼저 성결하여야 할지니라.⁷¹⁾

그는 기독교인이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음을 받고 정결한 사람이 되어야 남을 구원할 능력이 있다고 말하면서, 기독교인의 개인윤리적 차원에서 경건과 성결한 생활로의 개혁과 변화를 주문한다. 또한 그는 기독교인이 개인의 개혁과 변화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변혁적 신앙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역설한다. 이미 그는 기독교인으로 회심한 후 곧바로 전통사회의 구습으로 여겨지는 상투를 잘라 사회변혁적 신앙을 보여주었다. 그는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 새로운 시대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사회와 국가도 변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는데, 이는 1916년 2월 『신학세계』 창간호에 잘 나타나 있다.⁷²⁾

무슨 까닭에 무엇을 얻고자 서로 다투느냐. ... 지방이 지방을 다투며, 나라가 나라를 다투며 ... 서로 칼을 겨누며 서로 대포를 겨누느냐. ...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들과 너희의 어두운 것을 속히 회개하라. 우리는 이와 같이 악하고 어두운 세계를 철장으로 질그릇같이 부스러트리듯 하고 평화의 세계 즉 사랑의 세계를 짓고자 하노라.⁷³⁾

71) “양의 피로 옷을 씻음”, 『기독신보』 1916.1.12.; 이덕주, “기독교신앙과 민족운동”, 210에서 재인용. 이 내용은 필자가 현대어로 바꾸어 기록하였다.

72) 이덕주, “기독교신앙과 민족운동”, 211.

73) “조선의 변천을 논함”, 『신학세계』 창간호 (1962), 112-113.

이 글에서 손정도는 지구촌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분쟁을 언급하며 이를 행하는 자들이 속히 회개할 것을 주문한다. 그리고 기독교를 바탕으로 하는 평화와 사랑의 세계를 건설하자고 역설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그의 사회 개혁적이고 변혁적 신앙은 회심 사건에서 잉태되어 평양대부흥운동의 정화사건을 거쳐 협성신학교 재학 중이던 1908년 상동교회에 출석하면서 더욱더 강화되었다.

당시 상동교회가 운영하는 「상동청년회」와 그 부속기관인 「상동청년학원」은 학문을 통한 빈곤추방과 국세 회복을 취지로 학교를 설립하여 청년들을 교육하였다.⁷⁴⁾ 더욱이 「상동청년회」는 개화기 민족의 선각자들이 모여 가정, 정치, 경제, 사회 전반에 대한 사회개혁과 변혁을 논의하였다. 특히 1908년 이후 「상동청년회」는 회원들 가운데 이동녕, 이회영, 조성환 등이 안창호 등 서북지역의 인사들이 만든 「신민회」 지하운동에 참여하면서 「신민회」의 교육기관이 되었다.⁷⁵⁾ 따라서 손정도는 상동교회에 출석하면서 전덕기 목사의 영향 아래 기독교적 사회변혁 사상과 구국사상을 더욱더 강화시켜 나갔고, 이곳에서의 민족지사들과의 만남은 후에 민족운동에 참여하는데 결정적 계기가 되었던 것이다.

요컨대 손정도의 사회개혁적이고 변혁적인 신앙은 그가 기독교로 회심과 송실재학 시절 대부흥운동의 종교체험, 그리고 베어드 선교사의 청교도적 경건주의 신앙의 가르침에 의해 개인의 개혁과 변화의 신앙이 잉태되었고, 협성신학교 재학 중 상동교회가 운영하는 「상동청년회」와 「상동청년학원」에 출석하면서 민족지사들의 영향을 받아 사회개혁과 변혁의 사상으로 나아간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74) 한규무, “상동청년회에 관한 연구, 1897-1914,” 『역사학보』 126 (1990), 87.

75) 한규무, “상동청년회에 관한 연구, 1897-1914”, 105.

IV. 맺음말

해석 손정도 목사의 생애는 그야말로 기독교 신앙에 입각한 복음전도에 의한 개인구령의 열정과 민족의 자주독립을 위한 부단한 투쟁의 연속이었다. 그는 1882년 7월 26일 평안남도 강서군에서 태어나 1931년 2월 19일 길림의 동양병원에서 세상을 떠나기까지 50년의 짧은 인생을 살았지만 한국기독교사와 민족운동사에 특별한 발자취를 남긴 인물이다. 그는 인간구원을 위한 복음전도사역과 민족독립운동을 동시에 추구했던 보기 드문 목회자였다. 이러한 그의 삶은 이미 그의 초기 생애와 교육 속에서 잉태되었다. 따라서 본 논문은 그의 전기 목회사역과 민족운동의 내용과 그 신앙적이고 신학적 특징들을 살펴보고, 그 특징들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를 추적하였다. 이를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로 손정도 목사는 종교개혁적 복음주의 신앙과 신학의 소유자였다. 그는 23세의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인 후 평양 숭실중학에 입학하여 서구적 근대학문을 익혔다. 뿐만 아니라, 숭실학교의 설립자 윌리엄 베어드 선교사의 교육이념에 영향을 받아 개인구원과 복음전도에 대한 열정으로 평생을 살아갔던 진정한 목회자였다. 특히 평양대부흥운동을 통한 종교적 체험을 통해 중생을 체험하였고, 나아가 성화의 삶을 추구하였으며, 목회자로서는 오순절 성령의 역사를 통한 신앙부흥을 일으켰던 목사였다. 그런데 이러한 그의 종교개혁적 복음주의 신앙과 신학 그리고 개인구원 신앙과 신학의 형성은 그가 다니던 숭실중학 시절의 기독교 신앙교육과 평양대부흥운동의 종교적 체험을 통해 형성되었다는 것이다.

둘째로 손정도 목사는 역사참여적 민족구원의 신앙을 지닌 기독교 민족주의자였다. 그는 청년시절 출석한 평양 남산현교회의 ‘굿셀청년회’와 숭실학교 재학 중 목회자의 소명과 민족의식을 동시에 형성하게 된다.

민족의식이 강했던 숭실학교의 학풍과 평양대부흥운동의 신앙체험은 그에게 목회자 소명과 민족적 구원의 문제를 자연스럽게 연결 짓게 하였다. 그는 1910년 중국선교사로 파송 받아 북경에서 「신민회」 회원인 조성환을 만난 후 민족운동에 가담한 이래, 상해임시정부의 의정원 의장, 교통총장 등을 역임하였고, 1923년 이후에는 만주 길림에서 목회와 민족의 독립을 위해 헌신했다. 그런데 이렇게 그가 목회와 민족운동을 병행할 수 있었던 것도 남산현교회의 청년회 활동과 평양대부흥운동의 신앙체험과 조선어 교육을 통해 민족의식을 고취 시킨 숭실중학의 교육이념에 일정한 영향을 받았다는 것이다.

셋째로 손정도 목사는 개혁적이고 사회변혁적 신앙의 소유자였다. 손정도는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이고 전통사회의 구습에 해당하는 상투를 곧바로 자르고 사당을 부수었다. 대부흥운동을 통해 중생의 체험을 한 후에는 자신의 삶의 변화를 시작해야 한다고 역설하였다. 이러한 그의 종교차원의 개혁과 변화는 그가 협성신학교에 재학 중 상동교회를 출석하면서 전덕기 목사의 영향 아래 사회와 국가 차원으로 확대되었다. 그의 개혁과 변화의 신앙은 후에 길림에서 이상춘 건설운동을 통하여 꽃을 피우게 된다. 그런데 이러한 손정도의 개혁적이고 사회변혁적 신앙은 청년시절 회심에서 잉태되어 평양대부흥운동의 정화사건을 거쳐 1908년 상동교회에 출석하면서 그 자리를 잡았다. 특히 상동교회가 운영하던 상동청년회의 사회개혁과 변혁을 위한 논의들은 그에게 큰 영향을 준 것으로 추측된다.

이처럼 손정도 목사의 생애의 전기(前期)의 목회사역과 민족운동에 나타난 신앙과 신학은 이상의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특히 이 세 가지의 신앙과 신학은 숭실중학 재학 시절 받은 신앙의 교육과 종교적 체험, 그리고 「상동청년회」에서 민족지사들과의 만남을 통해 형성되었다. 그런데

사실 손정도 목사의 신앙과 신학의 특징 가운데에는 사회주의에도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포용한 기독교 사회주의자의 일면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이 부분은 그의 생애의 후기(後期)라 할 수 있는 길림에서의 목회와 민족독립운동 과정에서 나타난 사상임으로 본 논문의 연구 대상에서는 제외하였다.

참고문헌

- 김명배. “윌리엄 베어드와 숭실대학.” 한국기독교문화연구소. 『베어드와 한국선교』. 서울: 숭실대학교 출판부, 2009. 97-145.
- _____. 『세계교회사 전통에 비추어 본 한국기독교사』. 서울: 북코리아, 2010.
- _____. “상해임시정부수립과 기독교민족운동가들.” 『한국교회사학회지』, 2019.
- 김석준. “우리 나라 반일민족해방운동과 손정도 목사.” 김득중 편. 『손정도 목사의 생애와 사상』. 서울: 감리교신학대학교출판부, 2004. 137-133.
- 김영희. “김일성주석의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를 통해 본 손정도 목사.” 김득중 편. 『손정도 목사의 생애와 사상』. 서울: 감리교신학대학교출판부, 2004. 138-153.
- 김창수·김승일. 『해석 손정도의 생애와 사상연구』. 서울: 주)도서출판넥서스, 1999.
- 김홍수. “하란사, 손정도, 현순의 애국적 생애.” 『기독교사상』. 711 (2018), 6-6.
- _____. 『손정도, 애국적 생애』. 서울: 숭실대학교 지식정보처, 2020.
- 리차드 베어드. 숭실대학교 뿌리찾기위원회 역주. 『윌리엄 베어드』. 서울: 한국기독교문화연구원, 2016.
- 류대영. 『초기 미국선교사 연구』. 서울: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2003.
- 박용규. “윌리엄 베어드(William Martyn Baird)와 한국선교.” 한국기독교문화연구소. 『베어드와 한국선교』. 서울: 숭실대학교 출판부, 2009. 39-94.
- 배형식. 『古海石 孫貞道 牧使小傳』. 基督教建國傳團事務所, 1949.
- 유동식. 『정동제일교회의 역사(1885-1990)』. 서울: 기독교대한감리회 정동제일교회, 1992.
- 이덕주. “초기 한국교회 부흥운동에 관한 연구.” 『세계와 신학』. 42 (1999), 126-152.
- _____. “일제하 기독교 민족운동과 사회주의.” 『한국기독교와 역사』 16 (2000), 74-114.
- _____. “기독교 신앙과 민족운동-손정도 목사를 중심으로.” 『세계의 신학』. 서울: 한국기독교연구소, 2000. 184-225.

- _____. “손정도 목사의 생애와 기독교 사상.” 『손정도 목사의 생애와 사상』. 서울: 감리교신학교출판사, 2004. 31-89.
- _____. 『백아덕과 평양승실』. 서울: 한국기독교문화연구원, 2017.
- 이만열. “한일기독교인의 민족의식 형성과정.” 『한국기독교와 민족운동』. 서울: 도서출판 성보, 1986. 11-73.
- 이명화. “항일민족운동사의 맥락에서 본 손정도 목사.” 김득중 편. 『손정도 목사의 생애와 사상』. 서울: 감리교신학대학교출판부, 2004.
- 이현희. “손정도 목사와 상해임시정부.” 정동제일교회 제1회 아펜젤러 학술강좌. 1999. 5. 30.
- 손원일. “나의 이력서.” 『한국일보』. 1976년 9월 27일.
- _____. “나의 이력서.” 『한국일보』. 1976년 10월 7일.
- 손정도. “고진감래.” 『기독교사상』.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15. 2. 83-85.
- 승실대학교 한국기독교박물관. 『승실교우회 회원명부』. 서울: 승실대학교 한국기독교박물관. 2017. 126.
- 승실대학교역사편찬위원회. 『승실대학교 100년사』 1권. 서울: 승실대학교출판부, 1997.
- 조이제. “손정도 목사의 설교.” 『세계의 신학』. 서울: 한국기독교연구소, 2001. 191-193.
- 조현정. “멘토링: 손정도 목사와 김성주.” 『기독교사상』.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19. 11.
- 한규무. “상동청년회에 관한 연구, 1897-1914.” 『역사학보』. 126권. 서울: 역사학회, 1990.
- 최봉측, “故 海石 孫貞道 牧師 略傳(二).” 『기독교 종교교육』. 서울: 대한예수교장로회 종교교육부. 1931. 8-9.
- 『기독신보』. 1922. 7. 26.
- 『기독신보』. 1927. 6. 8.
- 『기독신보』. 1931. 6. 24.
- 『그리스도 회보』. 1911. 1. 31.
- 『그리스도 회보』. 1911. 6. 30.
- 『그리스도 회보』. 1911. 7. 15.
- 『그리스도 회보』. 1911. 10. 30.

『그리스도 회보』. 1911. 12. 15.

『그리스도 회보』. 1913. 12. 1.

『신학세계』, 창간호. 1962. 2.

『기독교미감리회조선연회록』. 1917. 12.

『기독교미감리회 제 11회 조선연회록』. 1918. 19.

『감리회조선연회』. 1922.

『미감리회조선연회』. 1926.

『매년회 일기』. 1909. 22

『익세보』. 1919. 3. 11.

『조선미감리교회년회록』. 1914. 12.

『조선미감리교회년회록』. 1915. 12.

Becker, Arthur L., "M. E. North Report for 1907."

Blair, William Newton. *God in Korea*. Great Britain: the Banner of the Truth Trust, 1948.

Deming, C. S, "Wesley Church Chemulpo." *KMEC* 1907. 35.

"Pyeng Yang High School." *KMEC* 1907. 53-54.

Baird, Mrs. W. M., "The Spirit Among Pyeng Yang Students." *KMF III*, May, 1907.

논문투고일: 2022년 11월 13일

심사개시일: 2022년 11월 14일

게재확정일: 2022년 12월 15일

• 국 문 초 록 •

한국의 민족운동사에서 해석 손정도 목사는 한국 기독교계를 대표하는 가장 중요한 민족운동가이다. 그의 일생은 목회사역과 동시에 민족의 독립운동을 위한 투쟁의 연속이었다. 그는 기독교 신앙의 개인적 차원을 넘어 목회의 차원으로 나아갔고, 민족의 차원으로 발전시켰다. 그러므로 해석 손정도 목사가말로 진정한 기독교 민족주의라 부를 수 있다.

본 논문은 지금까지의 연구 업적들을 토대로 손정도 목사의 전기(前期) 목회와 민족운동에 나타난 신앙과 신학을 살피고, 그것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를 그 과정을 추적할 것이다. 이를 위해 본 논문은 손정도 목사의 생애 가운데 개종과 숭실중학 재학시절, 그리고 중국선교사역과 삼일운동 직전까지의 국내선교사역을 다룰 것이다.

주제어: 손정도, 개인구원, 민족구원, 사회변혁
